



‘최고네’ 불꽃전쟁... 평화는 올까

극단 ‘갯돌’ 마당극, 29~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남도의 구수한 입담이 살아 있는 마당극 ‘최고네’가 29일~30일 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된다.

목표를 중심을 활동하고 있는 극단 갯돌이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맞아 제작한 ‘최고네’는 두 집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작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유쾌한 소풍극이다.

한 동네에서 나라간 흥어 전문점을 운영 하는 최씨와 고씨는 오래된 앙숙 관계다. 하지만 최씨의 아들 석진과 고씨의 딸 틈틴텐

이 사랑에 빠지고, 이 때문에 최씨와 고씨는 대판 싸움을 벌인다. 이 사실을 안 틈틴텐은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집을 나가고, 가족들은 그날 뉴스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던 비행기의 추락소식을 듣게 된다.

문관수·김나인·임대성·고은정씨 등이 출연하며 전통문화연구회 예술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가격 일반 1만원 5000원, 청소년 1만원. 최씨와 고씨는 20% 할인해 준다. 문의 062-670-79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이남 작품 전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서울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 국가브랜드위원회 회의관에 전시된 작품은 디지털 병풍 ‘한류-해피니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근원을 과거 한국문화에서 찾은 이번 작

품은 신윤복·김홍도의 고전회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유희와 문화를 K-pop과 K-drama로 연결한 9분짜리 미디어아트다.

26~27일에는 각국 세계 정상들에게 작품이 공개되며 28일에는 일반인들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 무대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제주지부, 29일 금호아트홀

올해는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 탄생 150주년을 맞는 해다.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제주 지부(회장 임옥빈)는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드뷔시의 곡으로 음악회를 연다.

연주 레퍼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달빛’을 비롯해 ‘흑과 백’, ‘달빛’, ‘민타리아’,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교향시 ‘바다’, ‘작은 모음곡’이다.

기영은·박지현, 조선경·이영아, 임옥희·이윤정, 이훈진·이소정가 짝을 이뤄 두대의

피아노를 각 곡을 연주한다.

1991년 창립된 ‘한국피아노학회’는 전문 피아니스트들을 위한 음악단체로 연주회 뿐 아니라 피아노심포지엄, 아시아 피아노 아카데미&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 작가 중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은?

허련 ‘산수도’ 4000만원·손상기 ‘무제’ 2800만원

A옥션 작년 10차례 온·오프라인 경매 242점 거래

여수 출신으로, ‘한국의 블루스 로트레크’라 불렸던 손상기 화가가 39살로 요절하기까지 남긴 작품에는 그가 평생 시달린 척추 장애에 따른 신체적 고통과 처절한 가난이 담겨있다.

그의 지난 1977년작 ‘무제’라는 작품(캔버스에 유채·100×49cm)은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열린 미술품 경매에서 2800만원에 팔렸다. 이 작품은 미술품 경매회사 A옥션이 지난 한 해 경매를 진행했던 광주·전남·전북 출신 작가들의 서양화 작품 중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이다.

A옥션이 지난해 추진했던 10차례의 온·오프라인 경매를 통해 거래된 호남권 작가들의 작품은 모두 242점으로,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소치(小疵) 허련의 ‘산수도 8폭 병풍’(종이에 수묵담채·61×33cm), 두 번째가 손상기의 ‘무제’(1977년작)였다. 산수도 8폭 병풍은 4000만원, 무제는 2800만원에 팔렸다. 8폭 병풍인 점을 감안하면 단일 작품으로는 ‘무제’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셈이다.

A옥션측은 경매가격만 분석한 결과인 만큼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체 작품 가격을 읽는 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매 시기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고 낙찰위탁 수수료로 감안해 경매가의 경우 환랑 거래 가격보다 20% 가량 낮은 가격부터 시작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술품의 적정 가격이 나 작가별 인기도를 파악하는 데 참고자료로는 쓰일 만 하다.

또 다른 작품으로 의재(毅齋) 허백련의 ‘사계 산수 10폭 병풍’(135×32cm)이 1200만원에 팔려 뒤를 이었다.

광주의 대표적 중진 작가 강연근씨의 ‘무등산’(30.3×162.2cm·1998년)은 지난해 1월 980만원에 거래됐다. 강씨의 작품은 당시 600만원부터 경매가 시작됐다.

또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산월’(종이에 과수·16×25cm·1963년), 진양옥(1932~1984년) 화백의 ‘풍경’(53×65.1cm·1982년), 임인 허립의 ‘화조 8곡’(109×34cm·1939년)이 각각 900만원에 낙찰됐다.

이외 천경자 화백의 ‘금붕어’(46×34cm·800만원), 소치 허련의 ‘모란 8폭 병풍’(76×31cm·800만원), 사호 송수면의 ‘석죽도 6폭’(108×29cm·730만원), 남농 허건의 ‘소나무 8곡 일지’(93×313cm·710만원), 오승윤의 ‘방아’(50×60.6cm·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천 화백의 금붕어는 지난해 12월 800만원에 낙찰된 뒤 지난 3월 다시 경매에 부쳐졌을 때 960만원에 팔려 관심을 모았다. 천 화백의 ‘플라멩고’(종이에 캔·32×20cm)는 480만원, ‘꽃과 나비’(종이에 채색·20×64cm) 600만원 등에 거래됐다.

천경자·손상기 화가의 작품은 최근 2년 사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매에서 거래된 지역 중진 작가들의 작품 가격도 눈길을 끈다.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의 ‘마사이족의 춤’(두방지에 채색·23×27cm·1984년)은 지난해 5월 경매 시작 당시 가격은 10만원이지만 60만원에 낙찰됐고 ‘항구’(캔버스에 유채·40.9×53cm)의 낙찰가는 150만원이었다.

우재길 미술관장의 ‘무제’(캔버스에 아



소치 허련 작 ‘산수도 8폭 병풍’

크림·39×53cm·1984년)는 80만원에서 경매가 시작돼 100만원에 팔렸고 진원장 조순대 미술대학 교수의 ‘서정’(캔버스에 유채·53×65.1cm·1993년)은 경매 시작 가격은 150만원, 낙찰가는 160만원이었다.

한희원 작가의 ‘눈보라’(캔버스에 유채·34×66cm·2010년)는 155만원, 오승우 화가의 ‘해경’(캔버스에 유채·31.8×40.9cm·1981년), ‘진도 관매도 바다’(캔버스에 유채·31.8×40.9cm·1981년)는 150만원에 거래됐다. 황순철 작가의 ‘고인돌마을’(캔버스에 혼합재료·45.5×53cm·2000년)은 100만원에 경매가 개시돼 130만원에 낙찰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40×31cm·1985년)는 540만원에, 이희호 여사의 작품 ‘자유’(종이에 먹·46×31cm·1998년)는 240만원에 거래돼 눈길을 끌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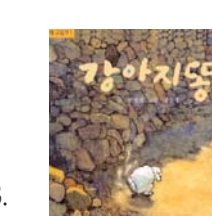
손상기 작 ‘무제’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 ‘강아지 똥’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 그림책은 ‘강아지똥’으로 나타났다.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작가로는 ‘구름빵’의 백희나씨가 꼽혔다.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회(위원장 이양미)가 어린이도서연구회원인 어른 독자 741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한국그림책’

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35명(18.32%)이 고(故) 권정생씨(글)와 정승각씨(그림)가 함께 엮은 그림책 ‘강아지똥’(갈빗 어린이)을 꼽았다. 윤석중씨와 이영경씨의 ‘넉 점 반’이 16.42%(121명)로 뒤를 이었고 ‘구름빵’ 15.33%(113명), ‘엄마 까투리’(83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작가’로는 510명 (66.38%)이 ‘구름빵’과 ‘달야사베트’ 등으로 친숙한 백희나씨를 들었다. 이어 ‘우리 가족입니다’, ‘똥집 준병이’등의 이해란씨가 426명(57.49%)이 꼽아 뒤를 이었다. 이어 ‘팔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의 박재철씨(266명·35.90%), ‘감기 걸린날’, ‘엄마랑 뽀뽀’ 등의 김동수씨(247명·33.33%) 등으로 집계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